

# 광주 외국인 코로나 확진 '심상찮다'

### 유학생 4명 확진, 외국인 유학생 1922명 진단검사 우즈벡 국적 13명 잇단 감염 선별검사소 4곳 설치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당국이 선별검사소를 설치,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들이 유독 많아 방역 당국이 확진자 간 연관성과 확진 배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학생 확진자도 적잖아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13명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효정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1명이 감염된 뒤 가족 등으로 n차 전파되면서 9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인 A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명과 B대학 유학생 1명 등 유학생도 4명이나 확진됐다. 이들 모두 공고롭게도 우즈벡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1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455명 등 모두 1만3079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4일 광주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누적확진자는 모두 144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103명에 이르며, 해외 유입 확진자의 50% 가량은 우즈벡 국적자들로 확인되고 있다. 우즈벡 출신 국내 거주자와의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 등 알음알음으로 국한 사례가 많고 이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적잖지만, 일각에선 자국 출국 과정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예러가 있는 것 아니냐

는 의문도 일고 있다. 광주지역 4년제 종합대학이나 2~3년제 전문대 소속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300여 명으로, 중국 국적자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우즈벡·몽골·미국·일본 등의 순이다. 외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즈벡 국적 외국인들의 확진 사례가 유독 많아서 공단과 대학,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검사에 착수했다"며 "원인 면밀히 파악해 본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흥기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검거

인터넷 방송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진행자를 찾아가 흥기를 휘둘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흥기를 휘둘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35)씨 등 2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흥기에 찢린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인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한 데 격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A씨는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목포 다세대 주택에서 불...30대 여성 세입자 화상

전남 목포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께 목포시 호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30㎡와 가재도구 등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세입자인 김모(35·여)씨가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택의 안방에서 난로를 사용하기 위해 연료를 보충하던 중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문 열린 차량서 현금 500만원 들고 튼 60대 '덜미'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요양병원 앞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현금 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부산경찰, 문 닫고 비밀영업 유희주점 등 잇달아 적발

부산경찰청은 지난 15~17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유희주점 등 47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시 5분께 출입문을 잠금 채 비밀영업을 한 연제구의 한 유희주점을 단속,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적발했다. 또 15일 오후 9시 35분께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어긴 채 영업했다고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 17일 오후 9시 이후 112에 접수된 집합금지 위반 관련 신고가 총 14건 접수됐으며, 이 중 일반음식점 2곳(5인 이상 입장 금지)과 미용실 1곳(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등 총 3곳을 단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연락두절 중인 68명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아 각 경찰서 신속대응팀이 조사를 벌여 이 중 63명의 소재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달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암 관음사 관련 코로나19 광주까지...광주·전남 사망 19명

전남 영암의 소규모 사찰인 관음사 발(發) 코로나19가 광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추가 사망자도 발생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3명(1445~1447번), 전남 2명(664, 665번) 등 모두 5명이다. 광주 1445번은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446번과 1447번은 영암 삼호읍 관음사 관련 집단 감염지인 도포면에서 농사를 짓는 전남 658번과 접촉한 뒤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중이다. 추가 사망자도 나왔다. 전남 오후 7시께 효정요양병원 관련 광주 1356번 확진자가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로 사망했다. 80대 고령

자인 1356번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광주지역 집단감염의 최근 유형별 확진자는 ▲효정요양병원 146명 ▲에버그린요양원 76명 ▲정사교회 74명 ▲BTJ열방센터 67명 ▲광주 1235번(양동시장 관련) 15명 ▲중앙병원 14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영암군민 1명과 화순군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남 664번과 665번 환자로 분류됐다. 664번은 지난 7일 경기 수원에 사는 기존 확진자와 전주에서 밀접 접촉한 뒤 격리 중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고, 665번은 전남 658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658번 환자는 영암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광주 거주자로 최근 마을 전수검사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사찰에 인적이 끊겼다. 이 사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한편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 1447명 중 지역 감염자는 1344명, 해외 유입은 103명이고, 전남 누적 확진자 665명 중 지역 감염자는 603명, 해외 유입은 62명이다. 사망자는 광주 13명, 전남 6명 등 모두 19명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전남 13개 시·군 대설특보 해제...내일까지 강추위

### 오늘 최저기온 영하 11도 예상...체감온도 더 낮을 듯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광주기상청은 18일 오후 2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무안·화순·나주·목포·함평·영광·영암·순천·장성·구례·

곡성·담양·신안(흑산면 제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같은 시각 적설량은 담양 7.8cm 곡성 6.3cm 구례 5.6cm 장성 5.4cm 광주 3.2cm 순천 1.5cm 등을 기록했다.

눈이 그친 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겠다.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20일까지 추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20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도관 동파·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